

25회 韓·日·臺 三國 農·林·工 業 會 議 會 場

제25회 한·일·대 3국 자매회의

정보 공유 통해 ‘농업현실 문제’ 극복키로



제26회 차기회의, 2010. 10. 14~15 한국에서 개최

제 25회 韓·日·臺 3국 자매회의가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일본 Sendai Kokusai Hotel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는 염병만 회장의 4명, 일본농약공업회에서는 大内修吉 회장의 8명, 대만구식물보호공업동업공회에서는 廖年亨 이사장의 5명이 참석했다.

이번회의에서 3국 회장단은 4반세기를 맞는 자매회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자매회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3국회장단은 또 3국 농업현실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 생산구조의 취약성, 농산물 가격하락, 연구개발 및 안전대책비의 상승 등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대응, 농약안전사용, 관련 행정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2010년 제26회

회의를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장소는 추후 선정하여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차기회의부터는 실질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농약행정, 등록, 홍보, 안전대책, 국제관련사항 중 1주제를 선정하여 실질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합의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일본-JCPA

농약안전성 홍보강화 사회적 신뢰제고에 공동대응



이에 앞서 일본농약공업회(JCPA)는 정세보고를 통해 협회의 중점과제를 밝혔다. 우선 안정된 농업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원 상호간 유대 및 협력을 바탕으로 농약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며 농약에 관련된 법률, 규칙 등 중요한 개정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행정, 관계기관, 관련단체 등과 긴밀한 유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요한 사회지도층에 대해 농약업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정보발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홈페이지 및 DVD활용을 도모하며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견학 등을 추진하는 한편 협회 지부가 주최하는 '농약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법령을 준수하고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안전하게 취급하면 환경, 안전, 건강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목표아래 'Responsible Care, Product Stewardship'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특허권 침해, 침해제품의 제3국 수출 해결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고 IIPPF(국제지적재산보호포럼) 및 경제산업성과 연대해 관민합동 방중 임무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일본농약공업회가 주부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공헌과 역할, 인체·환경의 영향, 안전성확보 등 농약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약세미나'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농약세미나'는 올해까지 23회에 걸쳐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2007년까지는 6회에 걸쳐 협회가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였고, 17회는 협회지부가 주관하여 개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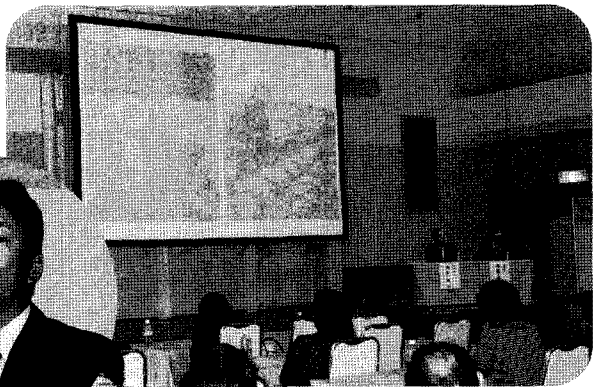
'농약세미나'의 특징은 여성앵커가 총괄

10월 8일 仙臺 선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농약세미나



위 : 전체 진행을 맡은 松田 전 NHK아나운서
아래 :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설명하고 있는
(좌)本山 객원교수(동경농업대학)와
(우)眞板박사(진류농약연구소 이사)

생산농가가 직접 패널로 참여하여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줌.



진행하며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 2인, 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미나 내용으로는 △농약은 어떻게 발

전되어 왔는가? △농약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농약의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약세미나'에 참석하는 주부나 소비자 들은 일본농약공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 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석하 기 때문에 그 호응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농약공업회는 지금까지 해온 세미나 의 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이 사업을 지방 군소도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만 - TCPIA

농약관리법 전면 개정

WTO가입후 벼농사, 특작 크게 줄어



대만구식물보호공업동업공회(TCPIA)도 정세보고를 통해 2002년 WTO가입후 농산 물시장 개방에 의한 수도와 과실 판매 영향 이 크게 늘어, 수도의 경우 7년간 생산고는 4.46% 하락했고 특용작물 생산량은 23.43%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대만의 농약관리법 각종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등록이 까다로워졌다고 밝히 고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농약시험 위

탁규정 △특정용도 농약심사규정 △물수농 약, 원제처리방법 △농약 라벨 표기 및 관리 방법 △농약 운송·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약시험위탁의 경우 △농약시험의 범위를 단일작물범위, 확대사용범위, 마이나 작물 사용범위로 정하고 중앙소관기관은 적용확 대할 작물의 그룹화, 병해충 종류 및 대표적 인 사용범위와 실시방법을 공표토록 했다.

또 농약시험은 소관기관에서 지정한 기 관, 대학, 법인 및 단체등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사용금지 농약, 국내 소관기관과 수입국 에서 금지된 화학제품, 로테르담조약 등 국제조약에서 수입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 은 농약이나 화학제품은 신청을 받지 않 도록 했다.

이와함께 몰수된 무등록농약, 가짜농약 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 영·민영 폐기물 처리기관에 의뢰해 처분 토록 했다.

또 농약의 명칭을 중국어로 표시하지 않 을때는 상표법의 허가를 받은 등록자의 경 우 외국어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은 이날 정세보고를 통해 농약관리법 추진 현황, 농업정책 방향, 농약품목 등록상 황, 소비자에 대한 농약안전교육 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Y